



정덕용 작가의 '바코드'



자신의 작품 '회색도시'를 보고 있는 윤상하 작가.

더 가치있는 '가짜' 들에 대하여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는 요즘, 가까운 담양의 해동문화예술촌을 찾았다. 해동문화예술촌은 제주조각을 문화 거점시설로 재조성한 곳으로,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예술과 실험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에도 봄을 맞아 꽃이나 자연 등을 다룬 다른 전시관과는 다르게 영화 매트릭스에서 영감을 얻은 '마법같은 현실, 매트릭스' 전을 선보인다. 영화 '매트릭스'가 현실 세계와 가상현실의 세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면, 이 전시는 현실 그 자체의 매트릭스를 표현하고자 한다. 현실과 허상(환상)의 관계에서 가짜가 진짜보다 더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역설현상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는 서영기, 조은솔, 정덕용, 윤상하 등 4명의 청년작가가 참여한다. 지난 12일 개관으로 분주한 해동문화예술촌 아레아갤러리에서 전시에 참여한 청년작가 정덕용(26)과 윤상하(26)를 만났다.

◇ '바코드'에 가려진 현실
검은 방 내부에 TV를 설치하고 있던 정덕용 작가. TV속 하나의 큰 바코드 위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 각기 다른 모양과 길이의 바코드를 붙이기 시작한다. 마지막, 작가가 나타나 바코드를 하나씩 찍는다. 뻑, 하고 바코드 찍히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린다. 그의 이번 전시작 '바코드'다.
그는 이번 작품을 위해 바코드 하나 하나를 각각 만들었다. 그는 관람객들이 함께 작품에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 한 칸에 바코드를 직접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바코드 하나를 찍으면 그 바코드 안에 입력된 키워드가 TV안에 등장한다.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저 바코드

해동문화예술촌 '마법같은 현실, 매트릭스' 전 청년작가 서영기·조은솔·정덕용·윤상하 참여

모양을 따라한 스티커를 붙인 작품이라고 오독하기 쉽다. '바코드'는 '세계'라는 키워드가 입력된 큰 바코드 안에 많은 영상들과 다른 정보들이 붙여지며 '세계'라는 큰 의미의 바코드를 가리게 된다.
정 작가는 "정보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쉽게 바코드만 찍어서 접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편리 속에 가려진 진실이나 현실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점점 망각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작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한 그는 "전공에 국한된 작품활동을 하기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가장 잘 이

유리는 방식의 매체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며 "그래도 요즘은 설치미술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전작도 화장실에 말린 노가리를 두었던 설치미술이었다. 설치미술의 가장 큰 매력으로 그는 "그 공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공간이 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점을 꼽았지만,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일들마저

도 작품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 '회색 도시'속 현실에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저항하는 '나'
윤상하 작가의 두 작품은 PVC 위에 그려졌다. PVC란 폴리염화비닐의 줄임말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계열의 비닐이다. 투명한 소재인 PVC는 PVC 너머의 것을 투영해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자신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 작가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이번 전시 자체가 '매트릭스' 전이기 때문에 PVC라는 재료가 가상현실이나 미디어 매체 속에 있는 화면 속 화면처럼 실제와 가상을 쉽게 왔

다갔다 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스토리텔링하는 식으로 작품을 완성한다는 그는 이번 작품 속 인물들과 상황을 만화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그는 "이미지와 정보 과잉 시대에 자신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색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자 이번 작품 제목을 '회색도시'라고 정했다"며 "그 작품 속 아이는 또 다른 저, 즉 저의 자아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품 속 아이는 현실에 타협하기도 하고, 수용도 하고, 저항하기도 한다. "그 아이가 도시 내부를 걸어나면서 느끼는 많은 감정들을 작품 속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작가는 설명했다.
이 두 작가는 조선대학교에서 만나 현재는 '머피'라는 그룹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머피의 법칙에서 딴 이름이냐는 질문에 정작가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을 줄여 '머피'라고 했다"고 답했다. 젊은 청년들이 활동하는 그룹에서 나올 만한 재치있는 이름이다.
앞으로도 이들은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해서 작품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개막한 '마법같은 현실, 매트릭스'전은 오는 5월 6일까지 계속된다. 오프닝은 28일 오후 3시 예정이며, 문유미&이승규의 퍼포먼스 '화려한 만찬'이 진행된다. /오지현 수습기자

예술위,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표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대상 첫 도입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실시한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기관 누리집에 공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피해를 파악하고 평가해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예술위는 매뉴얼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평가와 대표사업 중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로 나누어 추진했다.
또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10개 분야, 156개 지표)에 더해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8개 분야, 36개 지표)를 신규 개발해 해당 지표와

관련된 업무 실무자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TF에서 자체평가를 진행했다. 내·외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 의견을 포함, 최종 평가를 결정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 또한 높였다.
인권영향평가TF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인권영향평가가 직접 참여하며 사업추진 단계별로 인권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 이슈를 학습하고 인권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인권 요소들을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예술위는 앞으로도 이번에 추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영을 개선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주요사업의 각 영역에 점차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확장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수습기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하세요"

문화·여행·체육 분야 온·오프라인 업체 모집

광주시에 광주문화재단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모집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되며, 1인당 연간 9만원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다양한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되는 문화생활 전용 복지카드로 올해 광주는 6만 6,502명에게 약 6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광주에는 영화관, 음반판매점, 공연장, 미술관, 철도, 고속버스, 여행사, 테마파크, 체육용품점 등 93여 개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VR체험관, 발달출체험, 실내스포츠 등의 업종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가맹점(사진인화, 온라인 취미클래스, 체육용품, 숙박, 음악 등)으로 그 이용처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신규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함께 '배달누리 가맹점'도 별도로 모집한다. '배달누리 가맹점'은 체육용품, 도서, 음반, 악기, 공예품, 자전거 등 배송 가능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점으로서 이용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해주고 이동식 단말기나 온라인 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해야 하며 기존 가맹점도 추가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배달누리 가맹점의 경우 문화누리카드 취약지역 및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우편홍보시 우선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전용가맹점은 NH카드사 및 KB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업체 중 문화, 여행, 체육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광주문화누리블로그에서 신청서 및 서약서를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메일(gjcmunhwanuri@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으로 확인 가능하다. /오지현 수습기자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6445-9370	함평지사	010-3773-2522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4154-8277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5431-4006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666-5888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234 광주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
동부권본부 : T. 061-743-4200 / F. 743-4202